정신문화연구 2007 겨울호 제30권 제4호(통권 109호) pp. 279~307.

研究論文

‘나’를 서술한 白農 趙昌容 산문의 성격과 의미

황 재 문*

Ⅰ. 서론
Ⅱ. 조창용의 생애
Ⅲ. ‘나’에 대한 서술의 양상
Ⅳ. 양식적 특징과 주제의식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Ⅰ. 서론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우리 문학의 전환기였다. 전래의 문학양식과 새로운 문학제도가 공존하였으므로, 이 시기 문학작품의 양상은 상당히 다양했으리라고 짐작된다. 그렇지만 신세대 작가들이 써서 근대적 인쇄매체에 실은 작품에 연구대상을 한정해서는, 실상에 근접하는 균형 잡힌 연구를 수행하기 어려울 것이다. 이 시기 문학의 전체적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는 전근대적이거나 과도적인 작품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나’에 대한 서술을 포함하고 있는 두 편의 산문을 검토하고자 한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두 작품은 20세기의 산물이면서도 한문으로 씌어졌고 출판되지도 않았으며, 또한 어떠한 양식에 속하는지 분명히 규정하기도 어렵다. 또 작가 역시 당대에 주목받았던 인물은 아니다. 그렇지만 전래의

* 서울대학교 BK연구교수, 고전문학 전공(hwajm@zaigen.co.kr).

양식에 따르면서도 새로운 시대의 문제의식을 담고 있다는 점은 부정하기 어렵다. 당대 한국사회의 식민지적 현실에 대한 각성을 담고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문제를 ‘나’에 대한 서술을 통해 드러낸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이에 본고는 ‘나’에 대한 서술 방식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에 주목하면서, 두 작품의 형식적 특징 및 작가가 말하고자 했던 바를 해석해 볼 것이다. 이는 장차 본격적인 비교연구를 시도하기 위한 사례연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본고에서 다루고자 하는 백농(白農) 조창용(趙昌容, 1875~1948)은, 전통적 학문을 익히고 교육과 언론을 통한 애국계몽운동에 힘썼던 인물이다. 1981년에 조동걸이 『백농실기(白農實記)』를 소개하고 1993년에 독립기념관에서 이를 영인·간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1] 그렇지만 아직 연구가 활발하게 이뤄지지는 않은 듯하며,[2] 특히 문학에 대한 연구성과는 아직 없는 것으로 보인다. 본고에서 살필 「제혈강남록(啼血江南錄)」과 「애강서록(哀江西錄)」 역시 아직 본격적으로 검토된 바는 없는 듯하다. 본고는 우선 조창용의 생애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고 이어서 작품 분석에 들어가는 순서를 취하기로 한다. 생애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본고에서 작품 속의 ‘나’와 실제의 ‘조창용’을 대비시켜 살피기 위해서도 생애에 대한 검토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Ⅱ. 조창용의 생애

『백농실기』는 1914년 4월에 조창용 스스로 자신의 행적을 기록하고 자신의 시문을 시기순으로 편집한 문헌이다. 비록 완전한 문집의 체제를 갖추지는 못했지만

1) 『백농실기』는 이후 독립기념관에 기증되었으며, 조창용에게는 1983년에 건국포장이 추서되었다. 독립기념관에서는 『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7집』으로 『백농실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를 간행하였으며, 2006년에는 홈페이지를 통해 그 탈초·번역본을 공개하였다.

2) 생애를 재구하고 주요자료를 해제하는 연구가 우선 이뤄졌고, 최근 영양 주실 마을의 전통을 규명하는 연구성과 가운데 조창용의 사례가 일부 검토된 바 있다. 조동걸, 「백농(白農)의 해항일기(海港日記)」, 『한국학논총』, 15집(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김순석, 「백농실기 해제」, 『백농실기』(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권오영, 「가학의 형성과 계승」,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편), 『영양주실마을』(예문서원, 2001); 김기승, 「새롭게 개척한 근대의 길」,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편), 『영양주실마을』(예문서원, 2001).

자기 생애의 주요 이력과 함께 작품을 수록하고 있어서,[3] 조창용의 생애는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재구해 볼 수 있다.

그렇지만 『백농실기』는 조창용의 생애를 재구하는 데 몇 가지 한계를 지닌 문헌이기도 하다. 이미 기록의 정확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바 있거니와,[4] 1914년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이력과 시문을 중심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교우 관계 등에 대한 기술이 충분치 않고 서술 자체가 주관적인 측면도 있다.[5] 이하에서는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서 『백농실기』에 나타난 조창용의 생애를 살펴보기로 한다.

조창용은 경북 영양의 주곡(注谷, 주실)에서 태어나 전통학문을 익혔다. 『백농실기』에 의하면, 7세에 백부인 석농(石農) 조병희(趙秉禧, 1855~1917)에게서 배웠고 10세에는 친족인 조언육(趙彦育)에게서 배웠다고 한다.[6] 이후에는 마을에서 교육을 받았는데, 17세에 월록서당(月麓書堂)에서, 19세에 임산서당(霖山書堂, 즉 滄洲精舍)에서, 21세에 망부(望阜)에서 강습하였다. 이 시기까지 조창용이 익힌 학문은

3) 『백농실기』에 수록된 시문은 국한혼용문과 한문의 두 가지 표기방식이 섞여 있지만, 한문학의 영역에 드는 것이 많다. 정확한 문체 분류를 하거나 '문학'의 영역을 한정짓는 것은 어렵지만, 조창용이 붙인 글의 제목을 존중하여 분류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한문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한시 142편, 사(辭) 1편, 기 2편, 상량문 1편, 제문 2편, 서간 17편, 설 1편, 서 1편, 우언계 산문 2편, 유람록 2편이 있다. 국한혼용문으로 기록된 것으로는, 논(論) 1편, 유람록 2편, 노정기 1편, 심문록(審問錄) 1편, 옥중기(獄中錄) 1편, 조문 1편, 규칙 1편, 연설문(취지서) 4편, 기도문 1편(순국문), 공문서류 13편, 가사체 행사가 2편이 있다. 이 밖에 『백농실기』에는 조창용이 받은 시문도 수록되어 있다. 그 수는 한시 100수, 서간 22편, 서 4편, 공문류 3편이다. 이들 작품의 성격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으며, 향후 따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4) 조동걸, 앞의 논문, 45~46쪽. 『백농실기』를 처음 소개한 조동걸은 편찬 당시 조창용의 정신이상 상태가 시작되었다는 점을 들어 史料로서의 신빙성에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또한 내용상의 착오가 발견되고 사람을 잘못 평가한 예가 있다는 점을 거론했다. 그렇지만 적어도 편집 당시인 1914년 4월에 조창용이 책을 편찬하기 불가능할 만한 상황에 있었던 것은 아닌 듯하다. 발문인 「강주산기발(降宙散記跋)」뒤에는 1914년 이후에 쓴 글 몇 편이 기록되어 있어 시문을 쓸 수 있는 상황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백농실기』에서 발견되는 오류는 대체로 연대나 인명(人名)에 관련된 것인데, 이는 기억의 문제 때문일 가능성이 커 보인다. "사람을 잘못 평가한 경우" 역시도 조창용이 얻은 정보 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5) 다만 본고에서 검토하고자 하는 두 편의 글은 1911년과 1912년의 것이어서, 어려움은 덜할 것이다. 즉 1914년 이전의 자신의 기록에 의거하여 1912년 이전의 생애를 재구하고 연대 및 인명에 관련된 '기억'의 정확성 문제는 다른 자료를 통해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6) 『백농실기』, 17쪽. 이하에서의 인용은 독립기념관 영인본의 면수를 기준으로 한다.

전통적인 것이었다.[7]

조창용의 학문과 인식에 중대한 변화가 나타난 것은, 스승이자 백부인 조병희가 서울에서 신학문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돌아와 고을의 청년들을 서울로 데려간 때부터이다. 조병희는 원래 「척사복원소(斥邪復院疏)」를 올리는 등 위정척사파로 활동하였고 을미의병에도 참여하였으나,[8] 이후 서울에서 당대의 개화파 인사들과 교유하다가 단발을 하고 마을로 돌아왔다. 그리고 조창용을 비롯하여 조술용(趙述容), 조종기(趙鐘基), 조인석(趙寅錫), 조두석(趙斗錫) 등을 서울로 데려갔다.[9]

이후 조창용은 1905년 10월에 서울의 국민교육회(國民敎育會) 내에 설치된 사립사범학교에 입학하였고, 1906년 7월 제1회로 졸업하였다.[10] 또 1906년 사립법률보성전문학교(私立法律普成專門學校)에 입학하여 1학기를 다녔고, 1906년 10월에 관립일어야학교(官立日語夜學校)에 입학하여 1907년 7월에 수료하였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에 입교하여, 1907년에는 연동교회(蓮洞敎會) 사찰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06년 8월부터는 국민교육회 간사원으로 활동하면서,[11] 양주의 일성학교(一盛學校, 1906.8~1907.6), 대구의 협성학교(協成學校, 1907.7~1908.1) 운영에 관여하였다. 일성학교에 재직할 때에는 「운동가」, 「춘유가」와 같은 가사 형식의 행사가를 남겼고, 협성학교의 개교를 준비하는 중에는 동아교육개진회, 제국실업회 등의

7) 이전 시기는 물론 임산서당에서의 학업도 전통적인 학문수련 방식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당시의 생활을 그린 「동고록(同苦錄)」(1898)의 다음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아침저녁으로 읊조림에 분명 鄒魯의 남은 소리가 있었고, 음풍농월함에 은연히 漢唐의 높은 가락이 있었다"(朝吟暮誦, 辨然有鄒魯之餘聲. 吟風弄月, 隱然有漢唐之高調. 『백농실기』, 18쪽).

8) 권오영, 앞의 논문, 89쪽; 김기승, 앞의 논문, 131~136쪽. 조창용 역시 의병활동에 참여하였다고 하는데(김기승, 앞의 논문, 136쪽), 『백농실기』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찾을 수 없다.

9) 이후 조창용은 사립사범학교에, 조술용은 관립영어학교(1904~1905)에 다녔다. 나머지 3인은 고향으로 되돌아왔다고 한다. 김기승, 앞의 논문, 139~140쪽.

10) 『백농실기』에는 광무 11년의 일로 기록되어 있으나 이는 착오인 듯하다. 1회 졸업식은 1906년 7월 7일에 있었다. 당시 졸업식 사진에는(김기승, 앞의 논문, 141쪽) '광무 10년'이라는 기록이 보인다. 『백농실기』에는 이 졸업생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다.

11) 『백농실기』에는 광무 11년(1907) 8월에 국민교육회에 입회하여 간사원으로 활동하였다고 했다. 그렇지만 조창용은 1907년 6월 군대해산과 관련된 소요로 귀향하였고, 8월에는 대구에서 협성학교를 건립하는 데 힘쓰고 있었다. 또 일성학교에 있던 1906년 8월 국민교육회 간사원인 유진형에게 편지를 보내는 등 국민교육회에 관여한 흔적이 나타난다. 따라서 국민교육회 간사원이 된 것은 1906년의 일로 보는 것이 옳을 듯하다. 『백농실기』에서는 여러 곳에서 연대 기록의 착오로 보이는 예가 발견되는데, 특히 1905~1907년의 기록에 그런 예가 다수 있다.

단체결성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그렇지만 당시의 활동은 순탄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일성학교에서는 재정문제로 곤란을 겪었고, 결국 군대해산으로 인해 일시 학교문을 닫게 되었다. 대구에서는 협성학교의 개교를 위해서 노력하였으나, 달성학교(達城學校)를 중심으로 한 반대세력이 있어 분란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에는 학교 건물이 완성되기 직전에 목수의 실화로 건물이 불타버렸고, 조창용 자신은 교비범용(校費犯用)의 죄명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이처럼 국내에서의 교육활동이 어려움을 겪게 되자 조창용은 해외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1908년 1월 블라디보스토크 한민학교(韓民學校)의 교사 초빙에 응한 것이다. 교사 초빙의 정확한 경위는 확인되지 않지만, 이 여행은 조창용의 삶에 중요한 전환점을 마련하게 된다. ≪해조신문≫의 주필로 초빙되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던 장지연(張志淵)과 만나게 된 것이다. 1월 12일 장지연을 처음 만난 조창용은[12] 이후 장지연을 따르며 활동하였고 평생을 문인으로 자처하였다.

한민학교에서의 생활은 처음에는 비교적 만족스러웠던 것처럼 보인다. 샌프란시스코 ≪대동보(大東報)≫의 사원으로 선임되었고, 교내에 설치한 동미상업회(東美商業會)의 발기위원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장지연이 피습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학교 증설 등의 문제로 학교 임원 간에 불화가 생겨서 더 이상 교사 생활을 하기 어렵게 되었다. 이에 조창용은 5월에 학교를 그만두었고, 장지연과 의논한 끝에 상하이로 가서 ≪대동보(大東報)≫ 서기로 일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대동보가 곧 정간되었기 때문에, 조창용은 귀국하게 되었다. 귀국해서는 장지연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심문을 받았고, 결국 '무빙표출국(無憑表出國)'의 죄목으로 3개월간 옥살이를 하였다.

풀려난 뒤 조창용은 대구로 내려갔고, 1909년 2월에는 대구보통학교 부훈도로 여자부를 맡았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에 노모의 병세를 이유로 사직하였고, 결국 1910년 11월에 모친상을 당하였다. 『백농실기』에는 대구보통학교 시절에 일성학교나 협성학교에서와 같은 분란은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이 시기에 노모의 병세

12) 장지연의 『해항일기(海港日記)』에는 1월 13일 조창용을 만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백농실기』의 기록과 함께 살펴보면, 조창용이 장지연을 찾아가 만난 것이며 원래부터 동행하기로 계획된 것은 아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장지연의 일기 내용은 다음과 같다. "朝有一少年, 昂然來拜, 叩之則英陽人趙昌容. 曾卒業於國民師範學校者, 持柳白樵翰函到此, 蓋要余伴往海港, 有志敎育之任也"[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편), 『張志淵全書』 8, 1109쪽].

가 악화되고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하는 과정을 지켜보아야 했던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음은 짐작할 수 있다.

1911년 5월에는 장지연의 추천으로 진주 경남일보사(慶南日報社)에 입사하였다. 이 때 조창용은 '민족의 사상의무'를 조금 아는 까닭에 상복을 벗고 나선 것이라고 했으니,[13] 독립을 잃은 상황이지만 언론은 민족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듯하다. 조창용은 수쇄(收刷)를 담당하여 여러 고을을 다녔다. 가는 곳마다 신문의 의의에 대해 역설하고, 명승지에서는 시를 읊었다. 그렇지만 발간된 신문이 압수당하기도 하였고, 한편으로는 신문사의 경영 문제를 둘러싼 내분이 발생했다. 결국 조창용은 강선호(姜善晧) 등과 다투었고, 1912년 4월에 대종교 포교사로 북간도로 건너가서 11월까지 활동했다. 북간도에서의 생활은 「북간도시찰기」의 일기 부분에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14]

1913년 5월 다시 진주로 간 조창용은, 경남일보사의 발송부 서기로 근무하였다. 그렇지만 경남일보의 재정 사정은 좋지 않았고, 장지연이 김갑순(金甲淳)에게 습격당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결국 장지연이 8월에 사퇴하였고, 조창용도 신문사를 그만두었다. 기간도 짧았지만, 이번에는 1911년의 경우처럼 신문사 일을 열심히 했던 것 같지는 않다.

경남일보를 그만둔 이후 조창용이 어떤 일을 했는지는 뚜렷하지 않다. 『백농실기』에서는 1914년 1월에 장지연을 만나기 위해 호남·호서를 여행하였고 장지연과 서신을 주고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다. 1915년 7월에는 신문구독을 위해 주소를 적어 올린다는 편지를 장지연에게 보내었으니 완전히 세상일을 잊은 것은 아닌 듯한데,[15] 그렇다고 어떤 특별한 일을 한 것 같지는 않다. 1918년에 쓴 시 「신거운(新居韻)」의 서를 살펴보면,[16] 새로 집을 구해서 세상과 인연을 끊고

13) 『백농실기』, 177쪽. "嗚呼라. 不幸 余之稍識民族之思想義務로 自脫衰服ᄒᆞ야 燒散晉陽江水上ᄒᆞ고 換着洋服ᄒᆞ야 卽日出發南道二十九郡ᄒᆞ다. 把題史筆에 不覺抆淚長嘆이 人道之未盡에 奈何오."

14) 『백농실기』에는 「북간도시찰기」라는 제목의 글이 둘 있다. 231~233쪽에는 강역, 물산, 영역 등에 대해 서술한 글이 있고, 242~260쪽에는 일기 형식으로 당시 생활을 서술한 글이 있다.

15) 장지연은 1914년말부터 ≪매일신보≫에 「고재만필(古齋漫筆)」을 시작으로 글을 실었다. 따라서 '신문'은 『매일신보』를 뜻하는 듯하다. 그렇다면 ≪매일신보≫가 총독부와 관련된 신문이었다는 점은, 적어도 조창용에게 크게 문제가 된 것 같지는 않다.

16) 「新居韻」, 『白農實記』, 296쪽. "무오년(1918) 2월에 고향에 집터를 사게 되어 비로소 집을 짓고 살 뜻이 생겼다. 이에 이 시를 짓는다. 영원히 바깥 세상의 일을 끊고 이로부터 마을을 나가지

지내겠다는 결심을 했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한편 말년에 고문의 후유증으로 정신착란 상태에 있었다는 견해도 있다. 같은 주곡 출신이며 『백농실기』를 소개한 조동걸은, 조창용의 말년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 아무튼 趙昌容은 귀국하여 다시 慶南日報에 있다가 북간도 여행이 문제가 되었든지 1913년에 日警에 잡혀가 모진 고문을 받아야 했다. 결국 그는 미치고 말았다. 1914년부터 鄕里에 살았지만 동네 어린이들은 '미친 할배'라고 불렀다. 밤이 깊어갈 때 언덕에 올라가 "이완용을 잡아라"고 소리치며 울 때 어린이들은 숨을 죽이고 몸을 움츠렸다. 낮에 만나면 아무렇지도 않을 때가 많았다. 그래서 미친 것으로 위장했다는 이야기가 남아 있기도 하다. 그러나 正常人은 아니었다.[17]

아마도 마을에 구전되는 말을 서술한 것이었겠는데, 조창용이 1913년에 받은 고문의 후유증으로 고향에 돌아온 1914년부터는 '미친 할배'로 살아갔다는 것이다.[18] 고문의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정말 미친 것인지 아니면 위장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미친 사람으로 주변사람들에게 인식되었음은 알 수 있다.

그런데 『백농실기』에서는 '고문'에 대한 언급은 발견할 수 없다. 1912년 11월 귀국한 뒤 1913년에 ≪경남일보≫에 다시 관여하였고, 신문사의 내분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활동을 그만두었을 뿐이라고 했다. 이를 미루어 본다면 조동걸의 서술에 연대상의 착오가 있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지만 적어도 교육과 언론이라는 평생을 건 두 가지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된 것은 사실일 것이며, 이것이 그를 '미친 할배'처럼 보이게 하는 원인이었으리라고 짐작할 수 있다.

않을 것이며, 매일 몸소 땔나무를 지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고자 한다(戊午二月日, 買得一基於故里, 始爲構居之意, 因作此詩, 永杜世外之事, 從不出鄕里, 身日負荊樵, 爲樂事)." 『백농실기』가 편집된 이후의 글이어서 발문 뒤에 기록되어 있다. 시의 본문은 일부 훼손되어 있다.

17) 조동걸, 앞의 논문, 45쪽.

18) 조창용이 말년 정신이상설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시점이었는가는 중요한 문제이다. 조창용이 『백농실기』를 편집한 것이 1914년 4월의 일이기 때문이다. 조동걸이 『백농실기』를 소개할 때도 이 점을 근심한 듯한데, 적어도 편집 당시에 자신의 행적과 글을 편찬하기 불가능한 상황은 아니었던 듯하다. 발문인 「강주산기발」 뒤에 실린 몇 편의 글을 살펴보면, 1914년 이후에도 시문을 짓는 일이 가능했음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III.'나'에 대한 서술의 양상

1.「제혈강남록」

「제혈강남록(啼血江南錄)」은 조창용이 1911년 9월 경남일보에 있을 때 쓴 것이다. 제목은 '강남에서 피눈물을 흘린 기록'이라 풀이할 수 있겠는데, 강남은 중국의 강남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19] 조창용이 우리나라를 강동(江東)이라 지칭한 예가 있고[20] 작품 말미에 상강(湘江)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글 전체의 구성을 살펴보기로 하자. 내용에 따라 다섯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① 어느날 문득 천상의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받다.
② 강가에 나왔다가 한 선객(船客)이 농부를 학대하는 모습을 보고 농부와 대화하다.
③ 농부의 청에 따라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말하며 피눈물을 흘리다.
  1. 육대주를 다니며 교육과 실업에 힘썼다.
  2. 남의 의심과 참소로 자신과 가족들이 비참한 지경에 빠졌다.
  3. 강남의 벗을 찾아가니 노예처럼 지내고 있었다.
④ 멸족(滅族)의 심법(心法)이 농부에게 가해지는 것을 보고 다시 피눈물을 흘리다.
⑤ 농부가 '나'에게 희망을 기다릴 것을 당부하다.

①은 분량은 짧지만 도입부여서 작품의 기본설정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다. 아

---

19) 문학적 관습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강남'은 중국의 한 지역이라는 차원을 넘어선다. '강남'은 실지(失志)한 은사(隱士)의 공간이라는 상징성을 갖기에, 작품 전체의 비극적 분위기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강남에 대한 당시 우리 문인의 일반적 인식은 김윤식의 다음과 같은 언급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대개 강남은 진실로 아름다운 곳이다. 그렇지만 중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풍토가 보통과 다르다. 강북의 벼슬살던 선비들 가운데 늘상 뜻을 잃고서 쫓겨나서는 나그네 생활의 고초를 겪으며 불평한 마음을 말하는 이가 많았으므로, 강남이 비록 아름다우나 족히 즐거울 수는 없었다(夫江南固佳麗之區, 然去中州踔遠, 風土異常, 江北宦遊之士, 每多失志遷逐, 羈旅愁苦, 以道其不平之懷, 江南雖佳, 未足爲樂. 「琴鶴軒記」, 『雲養集』 권10)."

20) 「請助金의 對호 趣旨書」, 『백농실기』, 125~126쪽. "噫라. 吾江東之同胞여. 來此以後로 不見祖國天日이 凡幾年이며 閱盡異域風霜이 凡幾時乎아."

래는 해당부분이다.

> 나는 어느 날 문득 뜻과 기운이 쾌활해지고 흉금이 시원해져서 멍하니 마치 취한 가운데 깬 사람 같아서 가히 복희씨 때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余一日闖生 志氣快闊 胸襟洒落 怳然若醉裏醒人 可作羲皇上界人).21)

직접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는, '나'가 어느 날 마음과 뜻이 시원해져서 취했다가 깨어난 사람인 것처럼 느껴졌다는 것이 전부이다. 그렇지만 마치 천상의 사람이 된 것과도 같이 느껴졌다는 것은 단순한 기분이나 감정 차원의 진술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무엇이든 상태의 변화를 수반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그것은 어떤 변화인가?

인용문에서 '醉裏醒人'과 '羲皇上界人'라고 한 데서 약간의 단서를 찾을 수 있을 듯하다. 전자는 굴원(屈原)이 「어부사(漁父辭)」에서 처음 자신의 상태를 "衆人皆醉我獨醒"이라 한 데서, 후자는 도연명(陶淵明)이 「여자엄등소(與子嚴等疏)」에서 자신을 '羲皇上人'이라 칭한 데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굴원과 도연명은 강직한 은사(隱士)의 상징적 인물이다. 시간적·공간적으로 떨어진 이들 인물과 자신을 동일시하고자 한다면, 여기에는 일종의 문학적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꿈이나 이계여행과 같은 문학적 장치가 직접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서두의 설정은 그와 유사한 효과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②에서 '나'는 강가로 나선다. 40 평생에 한 가지 해놓은 일도 없다는 자탄 속에 멀리 강변을 응시한다. 그 때 '농부'와 '선객(船客)'이 보인다. 이들은 배를 타기 위해 빨리 움직이는데, 그 모습이 대조적이다. 농부는 짐을 가득 지고 있고, 선객은 모자 쓰고 단장(短杖)을 짚었을 뿐 짐이 없다. 농부는 '억걸피(抑乞皮) 말'을 하고, 선객은 '아가다(阿加多) 말'과 '억걸피 말'을 모두 사용한다. 선객은 농부를 밀쳐 쓰러뜨리면서 '억걸피 말'을 쓰는 인간을 무시한다. 두 사람은 모두 실상 같은 말을 쓰는데도, 농부는 선객의 위세에 눌려 같은 말을 쓰는 사람, 즉 같은 족속임을 깨닫지 못한다. 이를 일깨워 주는 것이 '나'이다. 다가가서 농부에게 말을 걸고 사정을 이야기하자, 농부는 시의(時宜)를 모르는 구복지인(口腹之人)인 자신은

21) 「제혈강남록」, 『백농실기』, 182쪽.

'나' 또한 '억걸피 말'을 쓰리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고 했다. '나'가 가진 높은 모자와 단장(短杖)은 아가다 말을 쓰는 이의 특징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가다'와 '억걸피'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언어가 아니다. 지배자와 피지배자, 유식자와 무식자의 상징인 것이다. 더 나아가서는 민족을 구별 짓는 요소일 것이다. 지배자는 높은 모자를 쓰고 단장을 짚고 '아가다 말'을 쓰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시의를 안다. 이것은 '선객'과 '나'가 공유하고 있는 특징이다. 물론 두 사람의 행동은 다르다. 선객은 동족임을 부정하지만, '나'는 동족임을 알려준다. 그러자 농부는 '당일지사(當日之事)'를 듣기를 청하고, '나'는 잠시 고민한 후 자신의 과거를 들려주게 된다.

③은 '나'가 말하는 과거사이다. 우선 자신의 자랑스러운 과거를 묘사한다.

> 나는 예전의 어느 날 과연 불과 연기를 내는 화륜선을 타고서 어제는 바다에 있었다가 오늘은 뭍에 있곤 했습니다. 한 번 구름 같은 높은 모자를 쓰면 만방의 무대 위까지 빛났습니다. 한번 방향을 가리키는 단장을 휘두르면 산하의 요새가 될 만한 곳을 아래 위로 가리켰습니다.…청년을 교육하는 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동포의 실업을 권장한 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민지(民志)를 열고 이끄는 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풍경 좋은 누대는 내가 올라갔고 산하와 풍월은 내가 읊었습니다. 충성스런 혼령과 의로운 죽음이 있는 전쟁터에서는 내가 그를 위해 눈물을 흘리고 조문했습니다. 세치 혀로 천백의 용사들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한 번의 용맹으로 강동의 군웅을 고무시키는 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천리 밖에서 계교를 정해 육대주의 승패를 결정짓는 것이 내가 한 일입니다. 그 때 사회에 나의 손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余一日果是搭乘火艦烟輪, 昨海今陸. 一着如雲之高帽, 光表於萬邦舞臺之上也. 一揮羅針之短杖, 高低指點於山河要塞之處也.…敎育靑年, 吾所爲之也, 同胞之實業勸奬, 吾所爲之也, 開導民志 吾所爲之也. 樓臺風景, 吾所登陟也, 山河雲月, 吾所諷詠也, 弔忠魂義死之戰場, 吾所爲之淚也, 三寸之舌, 唱起百千之多士, 吾所爲之也, 一擧之勇, 抑揚江東之群雄, 吾所爲之也, 千里之籌運, 決六洲之勝敗, 吾所爲之也. 當日社會 無不入於余之手者也).22)

22) 「제혈강남록」, 『백농실기』, 184~185쪽.

높은 모자와 단장을 가지고 있는 '나'는 실제 세계무대에서 그것을 활용하여 대단한 일을 했었노라고 말했다. 교육과 실업의 권장, 유람과 시문창작에 그치지 않고, 천백의 용사를 감동시켜 움직이기도 하고 천하의 승패를 결정지을 계교를 꾸미기도 했다고 말했다. 결국 당일의 사회는 모두 자기 손에서 움직인 셈이라고 했다.

앞서 살핀 바 조창용의 생애는, 여기서 '나'의 이력과 같으면서도 다르다. 1911년 이전에 조창용의 외국 여행은 1908년의 블라디보스토크·상하이 체험이 전부이다. 교육사업을 하고 실업을 권장한 것은 사실이지만, 천하를 움직일 만한 계교를 실행하거나 용사들을 모아 감동시키지는 못했다. 이는 조창용이 스승으로 모시던 장지연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이다. 따라서 여기서 서술된 '나'의 모습은, 조창용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하되 '시의(時宜)'를 실현한 인물을 이상적으로 그려낸 것이라 할 만하다.

이처럼 빛나는 과거를 갖고 있었지만, '나'는 결국 비극적인 상황에 빠진다. 조물주가 시기할 뿐 아니라 의심하고 참소하는 사람이 있어 결국 귀국해서는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된다. 감옥은 매일매일 그날의 생사를 짐작하기 어려운 곳이어서 목을 베고 고문하는 끔찍한 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그 곳은 단순한 감옥이 아니라 염라부(閻羅府)였다. 조창용이 옥살이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여기서 그려진 감옥의 모습 또한 자신의 경험보다는 훨씬 참혹하게 묘사되고 있다.[23]

고난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감옥에서 풀려나 고향으로 돌아온 즉 아버지와 동생, 아들은 죽고 아내는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가 보이지 않는다. 노모는 병든 채 아들을 알아보지도 못할 지경이 되어 있었다. 병든 노모를 모시고 구걸하며 연명했지만 결국 어머니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고 했다. 조창용의 개인적인 불행과 어느 정도 일치하는 듯 보이지만, 이 역시 자신의 삶보다는 극단화되어 묘사되었다 할 것이다.

의욕과 목표를 잃은 '나'는, 강남에 사는 벗을 찾아 나선다. 천리 길을 여행하여 만난 벗은, 그러나 뜻밖에도 노예나 다름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 가족과는 생이별

23) 조창용의 감옥에서의 생활은 「옥중록(獄中錄)」에 기록되어 있다. 감옥에서 죽은 사람이 있었고 소란이 있었다고는 했지만, 감옥 생활이 '염라부'처럼 부정적으로만 그려지지는 않았다. 감옥은 '죄수의 위생에 주의하여' 새롭게 지어진 곳이기도 했으며, 조창용을 찾아와 위로하고 격려하는 전옥(典獄)도 있었다고 했다.

한 채 주인의 눈치를 보는 신세여서, 그날그날 주린 배를 채우기에 급급할 뿐이다. 벌레나 짐승조차 피할 길 없지만 노숙을 피할 수는 없었다고 했다. 늙고 병든 모습은 '나'보다 더 참혹했다.

이상과 같은 불행 속에서 '나'는 여러 차례 피눈물을 흘렸다고 했다. 감옥, 집, 노모의 죽음, 친구의 생활을 말하면서, 각기 그 해당 대목에 "눈물이 옷깃에 흘러내리는데, 바라보니 곧 피눈물이었다(涕淚下襟 見之則乃血淚也)"고 덧붙였다. 그만큼 당시의 상황이 어려웠다는 뜻일 수 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체험을 극단화시켜 피눈물 흐르는 상황으로 재구성한 것이라 하겠다.

④에서 '나'는 다시 농부에게로 시선을 돌린다. 농부의 고통 받는 모습을 보고서 다시 자신이 피눈물을 흘린다고 했다. 자신이 갖은 고난을 겪고서도 살아남아 남쪽으로 온 것은 '민족사상'이 조금은 있기 때문이었는데, 이 곳에서도 '멸족(滅族)의 심법(心法)'이 가해지고 있음을 보았던 것이다.[24] '멸족'은 사회진화론의 영향 하에 있던 당시 지식인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결말이거니와, 이러한 결말이 점차 현실화되고 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다.

⑤에서는 사정을 모두 들은 농부가 '나'를 도리어 위로한다. 그러면서 뒷날을 기약하기를 권한다.

> 그대는 진실로 강개한 선비이며 특별한 사람입니다. 지금 세상의 굴원이라 하겠고, 옛날의 오자서가 아닙니다.…이 강 또한 물고기 뱃속에 장사지냈던 상강이지만, 지금은 그 때가 아니며 당신도 그 사람이 아닙니다. 조문한들 어찌 알아주겠습니까? 한 조각 마음을 지나치게 상하지 말며, 장부의 뜻을 잃지 말고 뒷날의 희망을 기다리십시오. 하늘이 보는 것은 지극히 밝으니, 흥망성쇠의 이치와 이것이 가면 저것이 오는 징험을 하늘이 또한 속이지 않을 것입니다. 남아가 세상에 쓰이는 기구가 됨은 반드시 그 때가 있는 법입니다(子眞慷慨之士, 別樣之人也. 云當世之屈原, 非昔日之子胥也. 更恤慰以言之曰, 此江亦湘江水葬於魚腹之中, 此非其時也, 非其人也. 弔亦何知. 勿爲過傷於一片靈臺,

24) 「제혈강남록」, 『백농실기』, 188쪽. "내가 오늘날 남쪽으로 온 것은 감히 민족사상이 조금 있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만, 멸족시키는 세상의 심법이 이제 농부에게까지 가해짐을 보고는 또한 피눈물이 납니다(余之今日之南來, 敢說民族思想之小有也, 見世之滅族心法, 今於一農夫, 亦一血淚也)."

勿失丈夫之志以待後日之望也. 天鑑孔昭, 興亡盛衰之理, 此往彼來之驗 天亦不欺. 男兒需世之機器, 必有一時矣).[25]

굴원처럼 강물에 몸을 던질 결심을 할까 근심한 것인지, 농부는 '나'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고 뜻을 지키며 뒷날의 희망을 기다리라고 했다. 언젠가 남아가 세상에 쓰일 때를 만날 것이고, 그 때가 있으리라는 기약은 하늘이 속이지 않는다는 원리를 들어 보증할 수 있다고 했다. 큰 고난을 이미 겪었고 '멸족'이라는 위기가 눈앞에 닥침에 따라 움츠릴 수 있겠지만, 그것을 이겨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이, 「제혈강남록」에서 조창용의 생애가 직접 서술된 부분은 '③-1'과 '③-2'이다. 각기 자신의 사업과 개인사를 서술하고 있다 하겠는데, 살펴보았듯이 실제의 삶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아들이 죽고, 처가 집을 나갔다고 한 것도 사실과는 다르다. 『백농실기』에서는 모친상을 치룬 이후에 가족을 옮겨 살게 했다고 했으니, 홀홀단신이 되어 친구를 찾아간다는 설정은 성립할 수 없다.[26] 그렇다면 '시의(時宜)'를 좇아 활동하였으나 사업은 실패하고 가족은 불행해졌다는 대강의 사실 이외의 세부적인 내용은, 비극적인 면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허구화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③-3'에 제시된 '벗의 생애'는 과연 사실을 서술한 것일까? 상하이에서의 짧은 체류기간 동안 실제로 불행해진 벗을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사건은 『백농실기』에서 찾을 수 없다. 또 일본이 아닌 중국에서의 생활을 노예나 짐승의 생활로 비긴 것도 지나친 면이 있다. 그렇다면 '우인(友人)'이란 가공의 인물이거나 적어도 비극적인 면모를 극대화시켜 형상화된 인물일 것이다.

'우인'의 설정은 「제혈강남록」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는 굴원의 「어부사」와는 구별되는 점이기도 한데,[27] 여기에 대해서는 주제의식과 관련된 의미를 부여할 수

25) 「제혈강남록」, 『백농실기』, 189쪽.

26) 『백농실기』, 174~175쪽. "仝年 二月 二十一日 癸未時에 安東郡 豊山面 烏赤洞 壬坐 丙向 先塋右麓에 入山ᄒᆞ다. 家眷를 又移置于寧海郡 遠項洞ᄒᆞ다."

27) 「제혈강남록」은 서두에 자신을 '醉裏醒人'이라 하였고 두 인물의 대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에서, 굴원의 작품 「어부사」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어부사」에는 '우인'과 유사한 인물이 등장하지 않는다.

있을 듯하다. 즉 '나'와 '농부'가 겪는 고난이 두 사람에게만 국한된 일일 수 없고 어디에서 생활하거나 '억걸피 말'을 사용하는 족속의 현실임이 이를 통해서 강조된다는 것이다. 설사 '나'나 '농부'가 삶의 터전을 옮겼다 하더라도 현재의 고난을 피할 수는 없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나'의 현실과 생애는 운명적이거나 보편적인 현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에서 살핀 바를 정리한다면, 「제혈강남록」은 조창용 자신의 삶을 바탕으로 하되 세부적인 부분을 허구화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허구화의 방향은 고난을 극대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나'와 '우리'의 운명이 같음을 드러내도록 한 것이라 요약할 수 있다.

2. 「애강서록」

「애강서록(哀江西錄)」은 조창용이 1912년 북간도에서 대종교 포교사로 활동할 때의 작품이다. '강서에서 슬퍼한 기록'이라고 풀이할 수 있겠는데, 강서는 자신이 당시 머물고 있던 북간도 주변을 가리키는 말로 보인다. 전체의 구성을 정리함으로써 논의를 시작하기로 한다.

① 강서(江西)의 농가를 찾아가게 된 내력.
② 농가의 주인을 만나고 강서의 거주, 제도, 풍토, 물태, 언어 등을 살피다.
③ 주인의 위협과 요청에 따라 고국의 근래 역사와 자신의 내력을 말하다.
④ 주인이 오해를 풀고 같이 강서에서 머물기를 청하다.
⑤ 대화를 멈추고「강서가(江西歌)」를 읊다.

작품의 서두인 ①에서는 강서를 찾아가기까지의 내력을 서술하였다. 아래는 해당 부분이다.

나는 본래 뜻이 소활하되 늘 산수에 탐닉하는 벽(癖)이 많았다. 하루는 탐험차로 남해를 표류하다가 우연히 크게 이는 풍랑을 만났다. 파도가 사납게 쳐서 어느새 바다의 섬에 이르게 되었다. 관동의 여러 항구를 두루 거쳐 장백산 아래 다창목(多昌目)에 정박하였다. 바다의 나쁜 기운에 기력이 빠지고 정신이

> 혼미하여 지팡이를 짚고 물길을 따라 무산(巫山) 열두 고개를 넘고 두만강을 건너 중국 동북 삼성에 숙박하였다. 산수 사이를 왕래하며 두루 도회지를 유람하였다. 어느 날 한인의 촌락을 지나다가 어떤 농가에 들어가니, 주인이 구부정하게 문을 나서 영접하였다(余本於志氣疎濶, 每多山水之癖, 一日探險次, 漂流於南海上, 偶逢大作風浪, 波濤洶湧, 稍然漂失於海島上, 閱盡關東諸港, 去泊長白山下多昌目, 浪海中瘴癘之氣, 氣力陷削, 神精迷失, 扶杖從陸上路. 越巫山十二嶺, 涉豆滿江, 漂泊於中國東三省, 往來於山水之間, 周覽都會處. 或行韓民之村落, 訪入一農家, 則主人傴僂以來, 出門迎接).[28]

산수의 벽(癖)이 있었던 '나'는 어느 날 남해 바다로 나아갔는데, 우연히 풍랑을 만나 바닷가의 섬에 닿게 되었다는 것이 여정의 첫 부분이다. 그 이후로 '나'는 각지를 유랑하게 되었다고 했다. 관동, 백두산, 무산, 두만강, 동북 삼성을 거쳤고 도회지를 두루 살펴본 것이다. 그러다가 우리 백성들이 살고 있는 촌락에 가서 한 농가에 들어가 '주인'을 만나게 된다.

당시 조창용이 '강서'에서 활동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표류에 의한 것이 아니며 분명한 목적의식 하에 이뤄진 것이었다.[29] 따라서 서두에서 제시한 여행담은 허구적 설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서두의 설정은 「도화원기(桃花源記)」를 비롯한 가상공간에 대한 여행기를 연상시키는데, 현실세계와 단절된 공간이라는 직접적 서술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은 차이로 지적할 수 있다.

②에서 주인을 만난 '나'는 농가의 풍속 등을 살핀다. 한민(韓民)의 마을을 방문했다고 서술했지만, 언어나 풍속은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자세히 살펴야 했다. 언어는 말갈족의 것인 듯하고 의복은 변한의 유풍(遺風)은 있지만 완연히 북방의 것이었다고 했다. 풍속과 외모, 곡물과 기후도 고국과는 달랐다고 했다. 국문은 알지 못하고, 한자를 배워서 사용할 뿐이라고 했다.

이 마을의 주민들은 동방에서 5~6代 전에 동방에서 건너왔다고 밝혔다. 또 그

28) 「애강서록」, 『백농실기』, 234쪽.

29) 조창용이 북간도에 가는 과정과 그 곳에서의 활동상황은 「북간도시찰기」에 기록되어 있다. 그렇지만 표류해서 섬에 닿았다거나 농가를 방문하여 대화를 나누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창용은 장지연 등과 의견을 나눈 뒤에 북간도행을 결정하였므로 여행 동기 또한 '산수의 벽(癖)'과는 거리가 있다.

마을에는 고구려와 백제의 옛 성곽이 남아 있다고 했다. 즉 이들의 뿌리는 '나'와 같은 것이다.[30] 그렇지만 이들이 머물고 있는 곳은 마치 무릉도원과 같아서, 마을 사람들은 바깥 소식 특히 동방의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고 했다.

③에서 주인은 이제 자신들이 강서에 머물던 동안의 바깥 소식을 '나'에게 묻는다.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오늘날의 현실은 어떠한지를 묻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창용은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한다. 식민지로 전락한 현실을 말하기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에 주인은 '나'의 정체를 의심하고 사실대로 말하라고 위협한다. 어쩔 수 없는 처지에 놓인 '나'는 사실을 털어놓게 된다. 청일전쟁부터 국권침탈, 다시 일본인이 건너와 식민화되기까지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때 '나'에 의해 서술된 한국의 역사는, 적어도 연대에 있어서는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다. 예컨대 1906년에 군대가 해산되고 1908년에 총독부가 설치되면서 황실이 李王家로 격하되었다고 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 왜 이런 착오가 나타나게 되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그렇지만 이를 기억상의 착오 문제로만 돌리기는 어려운 듯하다.

> 신해년[1911]에는 한국백성을 외국으로 이주시키고 구한국의 교과서를 압수하여 폐지하고 일본어를 국어로 만들었습니다. 계축년[1913]에 군을 병합하여 조직하고 일본인 다수가 건너와서 자연스레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한국백성의 재산을 조사하면서 이른바 보호한다고 한 것은 낱낱이 열거할 수 없습니다. 그 나머지 앞으로 닥쳐올 일은 내가 알지 못합니다(辛亥之韓民移散外國, 舊韓國敎科書之押收廢止, 日本語作國語. 癸丑之合郡組織, 日本人之多數渡來, 自作植民地, 韓民財産之調査, 所云保護者也, 不可一一枚擧者也. 其餘未來之事, 吾不知也).[31]

1912년에 썼다는 기록이 정확하다면, 여기서 언급한 1913년의 일, 즉 지방행정

30) 박은식의 「몽배금태조」에서 말갈족을 비롯한 북방 제민족과 한민족이 실상 같은 민족이라고 지적한 점은 이 경우 참고가 될 듯하다. 「몽배금태조」는 비슷한 시기 간도에서 대종교에 입각한 교육의 목적 하에 저술되었는데, 조창용 역시 그러한 인식 하에 '언어·풍속이 다른 동족'을 설정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조창용의 역사관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다.

31) 「애강서록」, 『백농실기』, 239쪽.

을 바꾸고 일본인이 건너와서 문자 그대로의 '식민지(植民地)'가 되는 것은 아직 현실화되지 않은 미래의 일이다. 결국 연대가 부정확한 과거와 실현되지 않은 미래가 함께 '역사'로 제시되는 것이다.

부정적인 시선으로 본다면 이는 잘못 기술된 역사라고 할 것이다. 그렇지만 조창용의 의도가 연대를 정확히 기술한 역사 서술에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므로, 이러한 평가는 온당하지 않다. 「애강서록」에서 조창용은 미래에 대한 전망과 우려를 전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국권을 잃고 다시 국어를 잃고 일본인들에게 땅을 빼앗겼으며, 장래에는 문자 그대로의 '식민지(植民地)'가 될 것 같은 조국의 처지가 문제인 것이다. 또 땅을 잃은 백성들의 운명이 문제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은 결국 「제혈강남록」에서 제시한 '멸족의 심법'일 것이다. 또 이러한 서술을 통해 이 시기의 역사란 멸족의 심법이 실현되고 있는 엄혹한 현실일 뿐임을 밝히는 셈이다. 고국의 역사에 대한 답변이 끝나자, '나'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 발언한다.

> 나는 한국 바다 동쪽 궁벽한 마을 외진 곳에서 살았습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학업에 힘쓰며 대대로 가풍을 이어받았고, 몸을 닦고 집안을 가지런히 하면서 스스로 가업을 이어왔습니다. 대대로 청빈한 가족이라 부귀를 드날리지 못하였으나, 조선 500년간 조정에 출사하였으니 자유롭게 활동하던 신령한 나라의 백성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시국을 당하고 시대의 형세가 변천하였기 때문에, 스스로 교육으로 몸을 일으켰고 교육을 의무로 여겨 10년 동안 밖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천운이 불행하여 나라가 패망하였으니 이치가 그리한 것입니다. 제비집이 한 번 엎어지자 아무 것도 보존하지 못한 채 이 한 몸 떠돌게 되어, 살아갈 길도 없고 드넓은 우주에서 돌아가 의지할 곳도 없게 되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시고 아우와 자식이 죽어 온통 한을 품고 살고 있으니 저승으로 돌아가더라도 이 한이 어찌 다하겠습니까? 멀리서 동족이 강서에 와서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몸을 끌고 움직여 산과 바다를 떠돌며 먹을 것을 구해가면서 여기에 온 것입니다(余則家在韓國海東窮巷僻處, 課農勸學, 世襲家風, 修身齊家, 自須家業, 世世淸寒家族, 不是揚揚富貴, 朝臣自五百年來, 自由自活之神靈國民也. 當此時局之艱難, 因時勢之變遷, 身爲敎育出身, 敎授義務, 十年在外. 天運不幸, 國敗家亡, 理之所然, 燕巢一覆, 未保完囊, 漂泊一身, 生命無路, 廣寞宇宙, 依歸無處, 父死母死, 弟死子死, 一以飮恨, 歸去荒天, 此恨何極. 遠聞同族來住江西, 曳口轉身, 漂流山海, 求食到此).[32]

궁벽한 마을에서 태어나 가풍에 따라 학문을 익혔다고 했다. 난국을 당하고 시세가 변천됨에 따라 교육을 의무로 여겨 이에 힘썼고 그 결과 10여년을 객지에서 보냈다고 했다. 그렇지만 天運이 불행하여 국가는 망하고 자기 한 몸은 의지할 곳이 없어졌다고 했다. 조창용이 교육사업에 힘썼고 그를 위해 타향에서 생활한 점을 고려할 때, 이상의 언급은 실제의 생애와 상당히 가깝다고 할 수 있다. 적어도 '나'에 대한 서술이라는 측면에서는, 「제혈강남록」 보다는 사실적이라고 판단된다.

강서로 찾아온 이유는 어떠한가? 서두에서 '산수의 벽(癖)' 때문이라고 한 것과는 달리, 여기서는 멀리에 동족이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왔다고 했다. 서두에서와는 달리 문학적 관습에 따른 표현이 아닌 자신의 뜻을 직접 노출시킨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런 혼란이 작품의 결함에 해당할 수는 있겠지만, 적어도 자신의 뜻과 생애를 사실대로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이 부분의 서술은 의미가 있다고 판단된다.[33] 장지연과 의논하여 대종교 포교사로 간도에 온 근본적인 이유가 직접 드러난 것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애강서록」에서의 조창용의 생애에 대한 서술은 비록 길지 않은 분량이지만 사실적 요소가 강한 것이라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④에서는 오해를 푼 주인이 조국과 '나'의 미래를 근심한다. 또한 조상의 무덤이 있는 땅은 전쟁터가 되어 버리고 친척들은 노예가 되어 버렸을 듯하니, 자신들은 이제 찾아갈 조국조차 없다고 탄식한다. 그것은 '나'에게도 적용되는 현실이다. 이에 '나'에게 강서에서 함께 태평무사한 백성이 되는 것이 어떠한지 의사를 묻는다. 세상과 인연을 끊고 지내는 것이 한 가지 방법이겠으나, '나'는 그것을 선뜻 택하지 못한다.

⑤에서는 주인과의 대화를 마친 뒤 자신의 감상을 노래에 담았다. 총 8수로 구성된 「강서가」는, 같은 족속인 강서 사람들의 현실을 말한 뒤 그들에게 당부하는

32) 「애강서록」, 『백농실기』, 239~240쪽.

33) 이 부분을 비롯하여 「애강서록」에서 나타나는 전후의 모순은, 어두운 현실에 대한 위기의식이 작품 자체에 일종의 균열을 가져온 것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즉 어느 정도 규범적인 문학양식을 따르는 것으로는 작가의 현실적 문제의식을 담아내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할 것이다.

말로 마무리되어 있다. 이 당부를 정리해보면 조국정신, 혈족정신, 조국충효, 조국기강을 잊지 말 것이며, 조국강토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주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정리하자면, 「애강서록」은 조창용의 생애를 기반으로 하되 조국의 역사와 현실에 대해 허구화된 설정을 덧붙인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자기 생애에 대한 서술이 비교적 사실적이라 하겠지만, 강서라는 공간이나 조국의 역사라는 시간의 설정에 있어서는 허구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작품의 중심이 '미래에 대한 우려스러운 전망'에 놓여 있다면, '우리'나 '조국'과 같은 '큰 나'의 서술에서 허구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IV. 양식적 특징과 주제의식

앞에서 서술상의 몇 가지 특징을 살폈지만,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이 '나'를 서술하는 방식이 완전히 새로운 것일 수는 없다. 오히려 전대 한문산문의 양식적 영향력 하에 있었다고 하는 편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따라서 두 작품의 특징과 의미를 구체화하기 위해서는, 전대의 작품 혹은 양식을 어떻게 활용 또는 변용하고 있는지를 살펴야 할 것이다. 이는 앞서 거론한 「어부사」나 「도화원기」와 같은 전대 작품의 영향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머물 수 없는 것이며, 보다 다각적인 문학적 전통과의 연관성을 살피는 작업이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동시대 작품과의 비교도 요청된다. 이하에서는 이에 대해 살피기로 한다.

본고에서 검토하는 두 편의 산문은, 앞서도 언급한 바 있지만 어떤 양식에 속하는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보다 다양한 한문산문 전통과의 관련성을 고려하는 편이 바람직할 것인데, 여기서는 단편적이나마 관련성을 찾을 수 있는 세 가지 전통적 양식, 즉 자전(自傳), 몽유록(夢遊錄), 우언(寓言)과의 관계를 검토하고자 한다. 또 동시대의 작품인 「꿈하늘」의 경우와 간략한 대비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선 두 작품이 '나'를 서술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자전의 전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물론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은 엄밀히 말해 자전은 아니다. '나의 생애'를 기반으로 '나'에 대해 서술하고 있지만, 그 중심이 '나의 생애'에 있지는 않기 때문이다. '우리'나 '조국'과 같은 큰 공동체가 문제의식의 중심에 놓이며, '나'

는 전체의 한 부분으로 제시되고 있을 뿐이다.

그렇지만 두 편이 글이 '나' 또는 '우리'의 생애(역사)를 다루는 방식에는, 전통적인 자전과 유사한 점이 보인다.[34] 자전에서는 실제의 '나'가 아닌 이상화되거나 이념화된 '나'를 등장시킨다. 「오류선생전(五柳先生傳)」 이래 중국의 자전에서 이상화된 '나'가 주로 서술되고 있으며,[35] 한국에서도 이런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36] 이 경우 자전은 실제의 '나'를 사실대로 기록하거나 자신의 내적 심리를 그대로 드러내기보다는, 이상화된 자신의 모습, 혹은 남들과 차별화될 수 있는 자신의 특징을 그려내는 형식을 취하게 된다. 이는 「제혈강남록」의 '나'나 「애강서록」의 '조국'의 형상화 방식과 유사성을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이 취한 바의 자기 생애를 허구화시키거나 허구화된 시공간 속에 배치함으로써 '나'를 그려내는 형식은, 한편으로는 전통적인 자전의 '이상화된 자기'와 동일한 의미를 지닐 수 있다. 더욱이 18세기 후반부터 한국의 자전에 사실적 표현 경향이 대두된다는 지적을 고려한다면,[37]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생애의 사실성 또한 이러한 흐름을 잇는 것이기도 하다. 물론 18~19세기 자전의 사실적 경향이 조창용의 산문만큼 강한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경향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나의 생애'를 다루는 방식을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두 가지 측면에서 전통적인 자전과의 차이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는 1인칭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 가운데는 자호(字號)를 내세우는 등으로 입전 대상인 자신과 서술자인 자신을 분리하고 거리를 두는, 적어도 형식적으로는 3인칭의 방식을 취한 예가 많은데,[38] 조창용의 글은 1인칭을 유지한다. 다만 객관화된 존재로서의 '나'가 사

34) 문학갈래로서 '자전'이라는 명칭이 적당한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다. '탁전(托傳)'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서구의 자서전과의 비교연구를 수행하면서 '자전'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점만 밝히고, 좀더 폭넓게 쓰일 수 있는 '자전'이라는 용어를 우선 사용한다.

35) 가와이 코오조오[川合康三](저), 심경호(역), 『중국의 자전문학』(소명출판, 2002)에서는 「오류선생전」형의 자전에 대해 '이러하고 싶은 나'라는 제목을 붙이고 있다.

36) 조선시대 자전의 성격과 특징에 대해서는 고은, 「사대부자전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2003) 참조.

37) 고은, 앞의 논문, 63쪽.

38) 기독교의 고해성사 제도가 서구 근대소설에서의 '고백소설'의 기반이 된다는 점은, 적어도 형식

라진 것은 아니며, 그것은 '또 다른 나'의 등장을 통해 유지된다. '우인'이나 '강서의 한민(韓民)'이 일종의 '3인칭화된 나'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는 과거나 이념이 아니라 미래에 관심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자전에서 자신의 과거를 드러내거나 은사(隱士) 등으로 이념화된 자기 면모를 그림으로써 작품의 주제의식을 드러내는 데 반해, 조창용의 산문에서는 예상되는 불운한 미래에 대한 묘사를 통해 '나' 혹은 '민족'의 미래에 대해 경계하고자 한다.

차이점의 해석을 위해서는, 두 작품이 산출된 시대에 전통적인 자전과는 구별되는 새로운 형태의 '나'에 대한 서술이 나타났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량치차오[梁啓超]의 「삼십자술(三十自述)」(1902)과 안중근의 「안응칠역사」(1910)가 이미 씌어졌고, 일본에서는 다야마 가타이[田山花袋]의 「이불(蒲團)」(1907)을 비롯한 사소설(私小說)이 문학사에 등장하였다. 이런 작품들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논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나'를 표현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의 확장이 전통적인 자전에 만족하기 어려운 정도로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조창용의 산문은 상대적으로 전통적 문학관습에 가깝다 할 수 있겠지만, 몇 가지 차이들이 시대 변화에 대한 대응의 산물임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작품의 구조와 형식에 주목한다면,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은 몽유록의 전통에서 해석할 만한 여지가 있다. 비록 '입몽'과 '각몽'이라는 몽유록 특유의 형식적 지표는 없지만,[39] 자신이 생활하는 현실시공간을 떠나 이계(異界)로 여행하는 형식을 취한다는 점에서는 상당한 공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계(異界)의 위상은 전대 몽유록과 달리 설정된다. 현실과 분리되거나 단절된 공간이 아니며, 현실과 꼭 같거나 숨겨진 현실의 문제점이 보다 명확하게 구현되어 현실화한 공간이다. 입몽이나 각몽에 해당하는 장치가 없는 것도, 이계의 시공간이 현실의 시공간과 분리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해될 수도 있다.

적으로는 자전에서의 3인칭의 존재와 근접한 점이 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순간 과거의 자신은 이미 객관화되고 3인칭으로 된 그가 되는 것이다"[안영희, 『일본의 사소설』(살림, 2006), 14~15쪽]라는 지적은, 입전 대상과 서술자의 분리라는 자전의 형식적 특징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그 목표는 다르다. '고백소설'이 3인칭으로 내면을 고백하지만, 자전은 3인칭을 가장하여 '나' 혹은 '나의 이념'을 표출한다.

39) 각몽에 해당하는 표지는 발견하기 어렵지만, 입몽의 '흔적'은 발견할 수 있다. 두 작품의 서두에 일상적인 정신상태나 활동공간에서 벗어난다는 설정을 둔 것이 그것이다.

이러한 점은 동시대 몽유록의 공통적 특징 가운데 하나이기도 있다. 「몽배금태조(夢拜金太祖)」(1911)에서 과거 인물들이 현실 문제의 해결책을 논하게 한 수법, 「꿈하늘」(1916)에서 님나라에서도 지상의 투쟁이 반복된다고 한 설정 등을 찾아볼 수 있기 때문이다. 급박한 현실에 대한 논란이 몽유록을 통해 펼쳐질 때, 현실과 구별되는 이계는 오히려 나타나기 어려울 것이다. 입몽과 각몽의 지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시공간에 대한 인식에서는 조창용의 작품이 이들 몽유록 계열의 작품들과 공통성을 보이는 것이다.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은, 작품의 주제지향성이 강하다는 점에서도 동시대 몽유록과 공통적이다. 그렇지만 정도의 차이는 있으며, 그것이 조창용의 산문작품이 몽유록의 형식을 취하지 않은 이유일 수도 있을 듯하다. 「몽배금태조」나 「만하몽유록(晩河夢遊錄)」(1907), 「몽견제갈량」(1908)과 같은 작품이 현실을 진단하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직접 제시하려는 경향을 보이는 데 비해,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은 다가올 미래에 대한 묘사를 통해 각성과 경계를 촉구하는 비교적 간접적인 방식을 취하는 것이다.

우언(寓言)은 말한 바와 뜻한 바가 다르다는 것을 가장 큰 특징으로 하는, 한문 문명권의 가장 유력한 글쓰기 전략의 하나이다.[40] 우언의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41] 두 작품의 경우 말한 바와 뜻한 바가 다르다는 우언의 기본 요건은 충족시키고 있다. '나'와 '우인', '농부', '강서의 한민(韓民)' 및 '조국'의 현실과 미래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극적인 묘사는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극복을 위한 노력의 촉구와 다르기 때문이다. 비극적인 현실의 묘사와 설정은, 단순히 그 상황에 머물지 말고 벗어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뜻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말한 바의 뒤에 감춰져야 할 뜻한 바가 너무 선명하게 드러난다는 점은 우언으로서의 결함일 수 있다. 특히 '농부'가 '나'를 위로하는 「제혈강남록」의 말미 부분이나 노래로 강서의 동족들에게 당부하는 「애강서록」의 결말 부분은, 두

40) 윤주필, 「우언글쓰기의 원리와 적용 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8집(2001), 5쪽.

41) 최근 우언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우언'의 지시대상이 넓어진 것이 현실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대상의 확장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 조동일, 「우언의 시대적 성격 비교론」, 한국우언문학회(편), 『우언의 인문학적 위상과 현대적 활용』(박이정, 2006), 45쪽에서는 "우언의 범위를 너무 확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흥미롭게 전개되는 이야기와 감추어두었던 진실이 표면적으로는 차이가 있는 것이 우언의 특징이다."라고 지적하였다.

작품을 우언으로 규정할 수 있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로 직접적이다. 그렇지만 이는 당시 우언의 공통적인 특성으로 지적될 만한 것인데, 이는 전대의 우언적 글쓰기로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현실인식이 급박했던 결과일 것이다.

이상에서 自傳, 몽유록, 우언의 세 가지 문학전통과의 관련성을 중심으로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을 검토한 결과, 두 작품은 세 가지 문학전통과 상당한 관련을 갖고 있지만 또한 변형시킨 부분이 적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 특히 변형은 조창용의 작품에만 국한된 것일까? 즉 작가적 역량의 문제에 기인하는 것은 아닐까? 이에 답하기 위해 신채호의 「꿈하늘」의 사례를 간략하게 검토해 보기로 하자.

「꿈하늘」의 '한놈'에 신채호의 개인적 생애가 반영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을 자전의 관점에서 해석하는 것은 무리가 따른다. '한놈'의 과거 생애가 아닌, 역사적 인물들과의 대면을 통한 각성이 작품의 중심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놈'이라는 3인칭을 사용한 점에 대해서는 자전의 전통과 관련지어 해석할 여지가 있다. '한놈'이 신채호 자신을 지칭한다는 점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바인데, 이러한 특징은 자호의 제시를 통해 자신을 3인칭화시키는 자전의 수법과 상통한다. 물론 「꿈하늘」의 경우 '나'와 '한놈'의 관계가 자전처럼 완전히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는다. '한놈'은 '소아(小我)'가 아닌 '대아(大我)'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이 때 '한놈'은 신채호이면서 신채호보다 더 큰 존재이며, 이는 「제혈강남록」의 '우인'과 '농부', 「애강서록」의 '강서의 한민'까지 포괄할 수 있는 존재일 것이다.

「꿈하늘」의 몽유록적 성격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선행연구를 통해서 몽유록의 일반적 특성과 구별되는 면이 있다는 점도 언급되었다. 의도적인 허구의식과 강한 서사성, 공간의식의 차이 등이 그러한 예이다.[42] 이밖에 입몽 및 각몽 과정의 불분명성도 지적할 수 있겠는데,[43] 이를 통해 「꿈하늘」이 전대의 몽유록 전통을 계승하면서도 상당 부분 변용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또 꿈과 현실이 시공간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개의 것일 수 없다는 의식의 반영이라고 한다면, 이는 「제혈강남록」 등과도 일치한다고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42)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계명문화사, 1994), 214~219쪽; 박희병, 「신채호의 근대민족문학」, 『관악어문연구』, 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1997).

43) 「꿈하늘」은 결말 부분이 남아 있지 않으므로, 각몽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다.

우언의 관점에서 「꿈하늘」을 다룬 선행연구도 있다.[44] 이는 몽유록 혹은 몽유양식이 우언의 하위유형에 속한다는 관점에 근거를 둔 것인데,[45] 선행연구에서는 주로 긍정적 측면으로서의 계몽우언적 성격이나 의미와 같은 부분이 부각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계몽성은, 우언의 목적성을 강화하면서 우언의 양식적 특성은 변형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고 지적할 수 있다. 어떤 의미에서는 서사성이 강화되면서 우언의 영역을 벗어나는 힘을 보여주고 있다는 해석도 가능해 보인다.

이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꿈하늘」 또한 자전, 몽유록, 우언이라는 전통적 양식을 계승하면서도 변형시킨 사례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조창용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자전보다는 몽유록의 전통에 더 가깝다는 차이점은 지적할 수 있다. 또 그와 함께 「꿈하늘」 쪽이 허구적인 설정을 더 많이 갖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렇지만 전대의 문학양식을 그대로 잇기 어려웠다는 점은 공통적인 부분이라 할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조창용의 작품은 「꿈하늘」과는 중요한 차이를 갖고 있다. 그것은 국문이 아닌 한문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점이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국문글쓰기가 늘어나고 한문글쓰기가 위축되는 상황임에도, 조창용이 국문이 아닌 한문으로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점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한문과 국문에 대한 조창용의 견해가 직접 드러난 자료는 발견되지 않지만, 그 원인에 대해 몇 가지 추론은 할 수 있다.

우선 첫째는 조창용의 문학활동이 한문학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앞서 조창용의 생애를 거론하며 제시한 작품 목록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바이지만, 조창용은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한문글쓰기를 했다. 학생들을 독자로 상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실제 조창용이 관여한 일성학교의 경우, 작문교과에서 '국한문교용' 즉 국한혼용문을 가르치고 있으며, 입학시험에서는 '한문독서'와 '국한문교용작문' 시험을 실시하고 있다.[46] 이는 학생 정

44)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언」, 『東洋學』, 3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2005).

45) 신채호의 예를 중점적으로 다루지는 않았지만 이와 같은 관점에서 몽유양식의 우언적 성격에 대해 검토한 성과로는,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연구』(다운샘, 2002); 조상우, 「애국계몽기 우언에 표출된 계몽의식」, 한국우언문학회(편),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집문당, 2004)도 참고할 만하다.

46) 「일성학교규칙」, 『백농실기』, 56쪽.

도의 독자에게도 '한문독서'를 요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다.

또한 국문을 통한 문학활동은 조창용에게 부자연스러운 것일 수 있다는 점도 지적할 수 있다. 그의 스승인 장지연이 신문에 국문으로 기사를 쓰는 일의 어려움을 토로한 사례가 있듯이,[47] 조창용에게도 국문글쓰기는 자신의 뜻을 담은 문학작품을 쓰는 데 적당한 것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 『백농실기』에 수록된 국문작품은 실용문이거나 국문시가에 한정된 것이다. 즉 조창용은 신채호처럼 국문문학활동의 영역에 접근하지 못하고, 자신의 인식을 담을 수 있는 전통적인 양식을 택하는 길을 취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조창용이 전통적인 양식을 채택하고 이를 변용하면서 '나'를 서술한 결과로 드러내고자 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즉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의 현실인식, 즉 작가의 주제의식이란 무엇인가? 앞서 '나'와 '우리'의 미래에 대한 경계와 각성을 드러내고자 했다고 지적했지만, 그것은 「제혈강남록」에서 직접 언급한 '멸족(滅族)의 심법(心法)'에 대한 우려와 경계일 것이다. 따라서 이 질문은 '나' 혹은 '우리'가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관계 없이 적용되는 '멸족의 심법'이란 무엇인가로 치환할 수 있을 것이다.

「애강서록」에서 우리 역사를 말한 부분은 그 구체적인 적용과정이라 할 수 있다. 청일전쟁, 독립의 공포, 전신국과 우정국 설립, 철도부설과 고문 초빙, 일본군대의 주둔, 조약의 체결과 충신의 자결, 정치제도의 변경과 각국 공사 철수, 총독부의 설립, 합방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우선 거론되어 있는데, 이는 망국(亡國)의 과정이다. 이처럼 나라가 망함으로써 사태가 끝난 것이 아니라는 데서 '멸족의 심법'이 문제가 된다. 한국인의 이주 및 유랑과 일본인의 이식, 즉 문자 그대로의 식민, 그리고 언어와 교육의 상실이 그 다음 단계이다. 이러한 과정은 현재 진행 중이며, 그것이 완성될 때 '멸족'의 결과가 전면적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 경우 「제혈강남록」에서 묘사한 '나'와 '우인', '농부'는, '멸족'이 임박한 비극적 상황에 대한 구체적 전망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비극적 전망을 제시하는 것은, '멸족'을 피해야 한다는 위기의식을 확산시키기 위한 장치일 것이다. 농부가 희망을 잃은 '나'를 위로하고 '나'가 강서의

47) 「해항일기」, 『장지연전서』 8, 1111쪽.

동족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것은, 그러한 의도를 직접 드러내 보인 예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에 빠진 민족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조창용이 제시하는 방안은 직접적인 독립운동이 아닌 듯하다. '멸족의 심법'에 저항하기 위한 방안은, 두 작품에 드러나기로는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이에 바탕을 둔 대비라고 할 만하다. 즉 만약 해외로 밀려나 살게 되더라도 조국의 강토, 언어, 정신을 잃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희망을 잃지 않고 쓰일 때를 기다려야 할 것이며, 흥망성쇠의 이치와 '차왕피래(此往彼來)'의 징험이 실현될 날을 기대해야 한다는 것이다.[48]

1910년 이후의 조창용의 활동은, 소극적으로 보일 만한 '멸족의 심법'에 대한 대항 의식의 연장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다. 모친상을 당하고서도 ≪경남일보≫를 통해 자기 역할을 다하고자 하고, 북간도로 가서 해외로 밀려난 사람들과 접촉하면서 정신과 교육을 강조했다. 이런 시각에서 추론하자면, 스승 장지연이 『매일신보』에 글을 쓰는 것도 '언어와 문자'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고 받아들였을 듯하다. 다만 조창용이 1914년 이후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했으므로, '멸족의 심법'에 대응한 결과가 얼마나 바람직한 것일 수 있었는지는 확인하기 어렵다.

V. 결론

본고는 「제혈강남록」과 「애강서록」을 소개하고 이를 전통적 문학양식의 계승과 변용이라는 차원에서 분석함으로써 19세기 말 20세기 초 우리 문학의 실제 양상에 대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비록 문학사에서 잘 알려진 작가와 작품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문으로 씌어진 두 작품이 당대의 현실과 문학사적 상황에 대응하고자 한 산물임을 이를 통해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본고에서 논한 두 작품의 양식적 특성을 본격적으로 해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전대 작품들과의 보다 다각적인 비교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자전,

48) 「제혈강남록」, 『백농실기』, 189쪽.

몽유록, 우언의 세 갈래의 특성 및 변화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뿐 아니라, '나를 서술하는 방식' 자체에 대해서도 정밀한 논의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한문학의 영역 뿐 아니라 가사나 민요와 같은 갈래에서 드러나는 자기 서술의 문학전통에 대한 검토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매개를 통해서만 이후의 근대문학 작품들과의 비교연구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연구는 한 편의 논문으로 감당하기는 힘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의 과제로 둔다.

20세기 초의 작품을 문학연구에서 문제 삼을 때, 오늘날 우리가 접하는 문학 및 제도의 기원과 연관 짓는 사례가 최근 늘어나고 있다. 그렇지만 그 기원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외부적인 자극과 압력에 의해 일방적으로 '발명'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내·외부적인 요구에 당대의 문학이 대응한 결과로 그와 같은 문학이 산출되었다고 가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겠지만, 이를 위해 다양한 층위의 작품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리라는 점은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조창용의 사례가 20세기 초 문학의 변화를 해명하는 데 가장 적합한 자료라고 하기는 어렵다. 외래의 충격에 대응하는 점에서 소극적이어서 새로운 문학양식을 산출하거나 한문 대신 국문을 활용한 문학을 했던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또 본고에서 다룬 두 편의 산문에서 '근대적 자전'의 모습이나 이른바 '근대적 자아'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그렇지만 그를 통해 당대 문학의 정확한 현실을 파악하고, 전대문학과 대비되는 내적인 변화의 가능성들은 살필 수 있었다. 사례들에 대한 다각적인 연구가 뒷받침된다면, 이는 보다 종합적인 연구를 진행하기 위한 출발점으로서의 의미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장지연, 「海港日記」.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편), 『張志淵全書』 8. 서울: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1986.

조창용, 『白農實記』(한국독립운동사자료총서 제7집). 천안: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93.

고은, 「士大夫自傳 硏究」.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3.

권오영, 「가학의 형성과 계승」.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편), 『영양주실마을』. 서울: 예문서원, 2001, 79~102쪽.

김기승, 「새롭게 개척한 근대의 길」. 안동대학교 안동문화연구소(편), 『영양주실마을』. 서울: 예문서원, 2001, 125~146쪽.

박희병, 「신채호의 근대민족문학」. 『관악어문연구』 22집,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1997, 185~196쪽.

신재홍, 『한국몽유소설연구』. 서울: 계명문화사, 1994.

안영희, 『일본의 사소설』. 서울: 살림, 2006.

윤승준, 「근대계몽기 단형 서사문학과 우언」. 『東洋學』 38집,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2005, 1~27쪽.

윤주필, 「우언글쓰기의 원리와 적용 자료의 범위 연구」. 『한국한문학연구』 28집, 한국한문학회, 2001, 5~35쪽.

조동걸, 「白農의 海港日記」. 『한국학논총』 15집, 국민대학교 한국학연구소, 1992, 43~58쪽.

조동일, 「寓言의 시대적 성격 비교론」. 한국우언문학회(편), 『우언의 인문학적 위상과 현대적 활용』. 서울: 박이정, 2006, 33~45쪽.

조상우, 『애국계몽기 한문산문의 연구』. 서울: 다운샘, 2002.

조상우, 「애국계몽기 우언에 표출된 계몽의식」. 한국우언문학회(편), 『동아시아 우언론과 한국의 우언문학』. 서울: 집문당, 2004, 171~198쪽.

가와이 코오조오[川合康三](저)/심경호(역), 『중국의 자전문학』. 서울: 소명출판, 2002.

국 문 요 약

본고는 전통적 지식인이면서 애국계몽에 힘썼던 조창용(1875~1948)의 산문 「제혈강남록」(1911)과 「애강서록」(1912)을 분석한 것이다. 이를 통해 두 작품이 '나'를 서술하면서도 사실 그대로의 '나'를 그려내지는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주제의식을 강하게 드러내도록 허구적 설정을 통해 형상화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는데,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자전, 몽유록, 우언과 같은 전대의 문학전통이 활용되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그렇지만 단순한 계승은 아니어서, 1인칭을 활용한 허구화, 현실과 이계의 동일성, 뜻한 바의 직접적 언명과 같은 변용의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해당 시기의 전통적 양식을 계승한 문학작품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공통적인 특징으

로 보이며, 향후 이에 대한 보다 정밀하고 광범위한 연구가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작품 자체에 대해서는 '멸족의 심법에 대한 경계와 우려'를 주제의식의 측면에서 지적할 수 있었다.

본고는 두 작품 및 조창용이라는 작가에 대한 문학적 연구를 처음 시도하였다. 논의 과정에서는 전기적 사실과 그의 저작에 대한 평가 문제에 대해서 몇 가지 사실을 밝혔다. 그렇지만 앞으로 보다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그의 작품 전반에 걸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대적 문인들에 가려서 잘 알려지지 않은 작가의 발굴은 19세기말 20세기초의 문학에 대한 균형 잡힌 인식을 위해 특히 중요한 일이므로, 향후 이러한 방향의 연구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투고일** : 2007. 10. 15. ◉ **심사완료일** : 2007. 11. 28.
◉ **주제어**(keyword) : **조창용**(Cho Chang-yong), **자기서술**(Autobiographical Writing), **자전**(Autobiography)